

강진산단 분양률 63% 달성 성과

전남개발공사, 5일 에스디엔(주)과 12만㎡ 계약 성사 2014년 이후 19개 기업 유치 분양률 '마의 50%' 넘어서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의 활발한 공동마케팅을 통한 잇따른 기업유치로 강진 산업단지 분양률이 '마(魔)의 50%' 벽을 넘어 60%대에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14년 7월 분양개시 이후 4년여만이다.

'산단 분양률 50%'는 산단내 기업유치의 '자력 경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50%미만은 전남도에서 '분양율 저조산단'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5일 수도권소재(경기도 성남시) 선박 및 태양광모듈 제조회사인 에스디엔(주)과 12만3000㎡면적의 분양계약(116억원)을 성사시켰다.

에스디엔(대표 최기혁)은 국내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총 800여억원 가량을 투자(고용인원 150여명), 공장 증설과 함께 강진산단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전남개발공사는 강진산단 산업시설용지 전체 41만㎡ 중 25만9000㎡를 총 19개 기업에 분양, 6일 현재 기준 63%의 분양실적을 올렸다.

10%대에 머물렀던 강진산단 분양률은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지난 9월 전남개발공사의 신입 사장이 취임하면서 두드러졌다.

분양 활성화를 위한 공사와 강진군의 협업체 본적 가동, 공격적 공동마케팅, 입주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난 7월이후에만 에스디엔을 포함해 케이제이환경(주)(2만4000㎡, 22억), 가온축산(주)(9900㎡, 9억3000만원), ㈜전국유지(9800㎡, 9억) 등 모두 8개 기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입주기업들은 무이자 분할납부 및 계약금 선납시 할인 혜택, 입지보조금(분양가의 45%, 최대 4억원) 및 시설보조금(20억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대에 조성된 강진산단조감도.

원 초과 시설 5%, 최대 5억원) 등의 지원 받을 예정이다.

강진군에서는 이승욱 군수 취임이후 임기내 강진산단 100% 분양에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 전담부서 확대, 투자유치 직원 인사우대 가점부여, 기업알선 군민포상제도, '민간투자유치위원회' 출범 등에 올인하고 있다.

공사와 강진군은 입주기업들의 조기착

'흥겨운 리듬의 향연' 여수동동북축제 10일 개막

여수 용기공원·선소 일원서 신명나는 북 퍼레이드 공연

태풍 콩레이로 연기됐던 여수동동북축제(포스터)가 '여수동동 천년의 흥을 깨우다'를 주제로 화려한 개막을 선보인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대와 전통을 잇는 새로운 브랜드 축제인 여수동동북축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여수시청 인근 용기공원과 선소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동동북축제'는 북소리를 뜻하는 '동동'에 잇든 역사적 배경과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올해 처음 마련됐다. 선소 앞 포구가 장생포라 불리던 고려말, 지역 출신 유탁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후 동동을 부른 역사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우선 10일 식전행사로 13개팀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북 퍼레이드'가 부영3단지 사거리-선소-용기공원 1km 구간에서 펼쳐진다. 특히 고려말 왜구를 물리친 유탁장군 후손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용기공원 주무대에서 열릴 개막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병호 동동북축제추진위원장, 서안석 여수시의회 의장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메인 아티스트 초청공연으로 아프리카 타악 아나포 퍼포먼스팀 등 세계



적인 유명 북 예술가들이 2시간 동안 열띤 공연을 펼친다.

16팀 180여명이 참여하는 공연은 다음날까지 이어진다. 11일에는 관람객들이 세계적인 드러머와 함께 현대와 아프리카 리듬을 직접 연주하며 체험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공연이 펼쳐진다.

피날레 공연은 4팀 80여명의 최고 아티스트들이 전통·현대가 어우러진 동동한마당을 연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제조했던 선소공원 보조무대에서 시민 프린지 공연이 펼쳐진다. 또 전통 북·드럼 등 세계 타악기 전시장을 마련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드럼 경연대회와 로드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푸드트럭과 플라마켓도 운영된다.

익산시 '그랜드취업박람회' 열린다

8일 원광대 문화체육관서...도내 유망중기 30곳 참가

익산시는 8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지역 산·학·관 취업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 익산 GRAND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우수 인재를 선점하려는 도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익산 시내 유망 중소기업 등 총 30개 기업이 현장에 참여하여 직원 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취업박람회는 현장채용관을 비롯해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관, 이력서우 무료

사진촬영관, 직업선호도검사관, 이미지 메이킹관, 여성구인구직컨설팅관, 지문인적성검사관, 창업컨설팅관,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2018 익산 GRAND 취업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http://open.jobkorea.co.kr>)를 통해 오프라인 30개 기업 및 온라인 참가 35개 기업 등 총 65개 기업의 채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행사 당일 단정한 옷차림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정읍시, '책 읽는 가족' 4가정 선정 인증서 수여

정읍시는 '책 읽는 가족' 4가정을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정읍시는 가정에서의 독서생활을 권장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책 읽는 가족에는 조창원·최창수·정운성·김성준씨 가정이 선정됐다.

책 읽는 가족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가족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가입된 가족의 도서 대출량과 도서관 이용 성실도, 문화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른 평가 후 선정된다.



고창갯벌 생태관광 홍보 팸투어에 참가한 유명 여행 블로거들이 심원면 고창갯벌 일원에서 조개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전북도, 농가 사육 소·염소 대상 일제 접종 완료

구제역 발생 우려 동절기 예방·차단방역 강화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동절기를 맞아 예방과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도내 사육중인 모든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용지 및 항체불이 저조한 돼지 농가에 대해서도 접종을 실시했다.

도 농림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농가들의 접종 소홀과 누락 등 백신접종관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종별 사양관리 특성을 감안해 시기를 정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염소는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사슴은 8월, 돼지는 연중 상시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항체불이 저조했거나 구제역이 발생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보강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1개월에 걸친 이번 접종에 소 38만5000마리, 염소 7만3000마리를 포함해 돼지 17만마리를 보강접종했다.

향후 농가들의 올바른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되

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항체양성을 기준치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농가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 처분, 백신 보강접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항체 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중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위험시기인 동절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해양수산물관광자원 발굴 '갯벌 생태관광 홍보 팸투어'

고창군은 최근 해양수산물관광자원 발굴과 홍보를 위한 '고창갯벌 생태관광 홍보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원면 고창갯벌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팸투어에는 유명 여행 블로거 25명을 초청해 이뤄졌다. 팸투어에서는 람사르 고창갯벌 생태경관 투어,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견학, 고창갯벌식물원 탐방, '두어마을 갯벌밥상' 체험 등이 진행됐다.

우수한 고창의 수산물을 활용한 '두어밥상'은 말린 망둥어, 김전, 젓갈 등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블로거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6000만원)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